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6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2. 23(금) 14:02~17:27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메일로 안건을 보내드릴 때에는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으나 의결안건 중 일부는 보고안건으로 전환하여 보고드리고 추후 의결하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368차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담심의제 시범운영 계획(안) 등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6건을 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고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강지훈 차장을 포함해서 사무처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개최한 제36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40호 전담심의제 시범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술지원본부장 류재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심의제의 시범운영 계획(안)입니다. 8쪽입니다. 지난 워크숍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담심의제의 역할이나 개념은 이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구성 및 운영 부분입니다. 구성은 7개 분야별 전담심의위원 5명, 총 35명을 기본으로 하고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4명을 위촉하고 전담심의관 1명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내부 전담심의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님들의 심의 참여는 FGI 조사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시범운영에서는 참여를 제외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사업의 개별 특수성에 따라 기 구성된 전담심의위원 활동 영역 외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후보단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별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성 방법 및 임기는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2025년도 지원심의에 대한 전담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심의위원 위촉 방법입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666명에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위원님과 사무처에서 후보자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촉 절차는 후보자를 3배수로 구성해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2배수로 압축하고 심의 및 활동 계획에 따라서 참여 의사 확인 후에 전담심의위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2차 공모 대상 사업들의 심의와 평가・모니터링, 선정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공모 4개 사업부터 도입하여 2024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으로 밑의 4개를 보시면 창작의과정,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공모이기 때문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나서 분야별 심의개최 횟수나 심의기간, 운영방식 등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관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제고를 위한 환류 체계 강화 관련해서 심의가 종료되면 공모 및 심의 결과를 분석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한 후 위원님들과 강평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현장의 이슈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 사항으로 현장 업무보고 시 공유 안건으로 반영하여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과 일부 분야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문체부에서 선임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시범운영 내용과 2025년도 전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가 공모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입니다. 2번을 보시면 창작의과정과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이 있는데 오전에 워크숍이 끝나고 위원님들과 세부 논의를 통해서 창작의과정과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전담심의위원회 1그룹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어린이・청소년 예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 양이 있기 때문에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25년도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업구조의 개편과 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다시 준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오전에 충분히 토의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전에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오전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게 현재 의결자료 기준으로 8페이지의 ‘필요시 심의 참관 가능’이라고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반대 의견을 주셔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안건번호 제1041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문예진흥기금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전담심의제 운영과 관련된 추가 공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의결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 공모 사업은 확정 공모예산 등의 일부가 변경되어 한 번 더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추가 공모를 시행하는 이유는 전담심의제 시범도입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저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시공모로 신청 기회를 한정하지 말고 연중 신청 기회를 확대하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지원사업 중에 현장 수요가 가장 많았고 5월 내에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정시공모 때 잔여 예산 일부를 확보하여 이번 추가 공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규모를 보시면 창작의과정 같은 경우 4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억 6,500만 원은 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안에 있는 예산이 잔여 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창작의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 분야에 한정해서 공모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은 정시공모 이후에 별도 공모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당 잔여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6억 6,700만 원 정도 공모예산을 확보하였고,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8억 7,9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은 3억 1,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전체 23억 2,600만 원 규모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정시공모 대비 주요 변경·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창작의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원래는 전 분야로 열려있다가 이번에 잔여 예산 소진 때문에 공연예술 분야에 한정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지원 제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청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창작주체지원 사업에 동시 선정이 불가하다는 항목만 있었지만 이미 정시공모 때 창작산실 사업에서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심의 기준은 기존에 상세한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 기반 수행 능력을 보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 내역에 추가하였습니다.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이미 동일한 사업에 신청된 개인과 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고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정시공모 때 이미 타 사업과 동시 선정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번의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해당 내용들은 정시공모 때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에만 지정과 비지정으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해당 항목만 지정형 5곳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오늘 의결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3월 21일 셋째 주까지 지원신청 접수 예정이고요. 그 접수 결과는 3월 전체회의 보고 안건으로 다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해당 보고 안건에 대해서 전체 접수 현황과 저희가 심의계획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심의계획 그리고 결과발표는 이전 위원님들 워크숍 때 말씀해 주셨듯이 월말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정리하여 한 번에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되도록 신속하게 심의가 완료된 사업별로 의결을 받아 발표를 일찍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 안건은 안건번호 제1042호 2024년 국제예술공동기금(한국-캐나다) 협업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4년 국제예술공동기금(한국-캐나다) 협업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캐나다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또는 캐나다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고요. 총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건의 행정 결격을 제외하고 50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심의위원 구성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 사항으로 문학과 연극 뮤지컬 쪽 심의위원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해당 분야 신청건수가 10% 미만이라서 문화일반 분야로 하여 심의위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척 사항은 없었고 심의 회피가 총 7건이었는데 단순한 개인적 친분이나 자문 등의 이유로 회피해 주셨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번에 선정된 단체 중에서 작년에 리서치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의 총평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리서치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거나 별도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사업에 제출된 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리서치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몇 개나 되고 그 단체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심사평처럼 리서치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리서치사업 선정 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6건의 사업 중에 4건이 리서치사업에서 수혜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총 50건 중에 6건이 리서치사업으로 신청하였고 6건 사업 중에 4건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별도 가중치를 두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 급박하게 공모가 진행되었던 것도 있고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개별적 리서치를 진행하고 2024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고요. 또한 캐나다예술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리서치사업 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우선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각 위원 : 가중치를 안 두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여 평가를 하고 결과를 환류해 오셨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업이라서 국내사업만큼 전수나 50% 이상 60% 이상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개발했을 경우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모니

터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여의치 않으면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이나 유학생 등 현지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 많은 수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올해 그 부분들을 반영하여 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미라 위원 :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평가나 모니터링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결과보고서나 내부 평가에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내부 실무선에서 그냥 평가와 모니터링이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의뢰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2024년도 환류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김미라 위원 : 기존에 해 오셨던 국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 안건은 안건번호 제1043호 2024년 문학창작산실 발간지원 심의 결과입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자료 3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기존에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문학 작가들의 우수 작품 선정·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은 총 6억 원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지난 9월 정시공모 의결 시에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던 건이고요. 10월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건수가 970건으로 워낙 많고 9개 세부 장르별로 원고를 모두 읽고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심의 기간이 오래 소요돼서 1차 심의는 12월에 2차는 2월 초에 진행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37페이지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문학 분야는 지금 담당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문학 분야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 2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였고요. 다만, 평론 1인을 세부 분과별로 모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의 시에는 총 9개 분과로 작품의 문학성을 기준으로 모든 작품을 전수 검토해서 158건을 선정하였고, 2차 심의 시에 최종 6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지역 작가는 총 22인으로 36.7%고요. 39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분야별 신청 건수, 선정 건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신청 대비 최종 선정률은 6.2%입니다.
이 사업은 심의 기간이 워낙 오래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되면 심의 결과를 바로 발표하고 OT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작년 현장 업무보고 시에 본 사업에서 지원신청 시 원고와 함께 필수 자료로 제출하는

출판계약서가 물론 필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작가에게는 부담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작품성으로 먼저 평가를 하고 선정 이후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15% 이상씩 예비 후보를 선정하였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보고 안건은 2023년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 보고 등 총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 2023년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강성규 경영지원팀장이 온라인 줌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안건은 원래 의결 안건이었는데요. 어제 기재부에서 복권위원회 결산 수치와 예술위원회 결산 수치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수치를 수정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하고 다음 주 27일에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고 안건인 2023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5페이지입니다.
예술위원회 회계구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와 수탁사업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회계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난 22일에서 25일까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고, 결산안을 1차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 발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금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3,650억 원과 여유자금회수 약 1,270억 원을 포함하여 수입이 약 5,756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 약 3,850억 원 그리고 여유자금적립 약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지출 또한 5,756억 원입니다.
수탁사업회계는 국고 약 270억 원을 포함하여 수입이 약 303억 원이고 사업비 집행 등을 통해서 지출은 약 294억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 차이는 약 8억 5,000만 원으로 잔여 예산은 2024년 2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총액은 7,1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회계의 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에는 자산이 8,313억 원으로 전년대비 1,75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대부분이 공시지가 기준 토지 재평가로 증가한 1,109억 원입니다. 부채는 총 1,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증가한 금액 대부분이 복권기금미집행 278억 원입니다.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19억 원의 자산이 모두 부채이기 때문에 기존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업상태입니다.
영업상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수입과 지출에서 여유자금운영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125억 원입니다.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수입이 4,5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61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대부분이 타 기금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4,391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0억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대부분은 복권기금 증가액 149억 원입니다.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 순수지출액 294억 원이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서 수입금이 모두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원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관련된 내용을 회계감사 결과를 했고요. 회계감사 결과 "결산상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복권기금 반납금과 관련해서 복권위원회와 예술위원회 간에 결산 수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세부 수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수치가 수정된 후에 다음 주 2월 27일에 서면 의결한 후에 결산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 안건 2023년 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에 대해 이어서 강성규 경영지원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예.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입니다. 2023년도 기본재산은 전년도 약 5,153억 원에서 805억이 증가한 5,95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약 230억 원의 재산이 증가했고요. 지금 대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토지 재평가에 따른 자산증가가 대부분입니다. 골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575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역시 토지 재평가에 따른 자산증가와 코스개선에 따른 자산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는 기본재산 세부 현황인데요. 특이사항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진흥기금적립금이 약 626억 원입니다. 현재 적립금은 2022년도 말 기준 928억 원 대비 약 302억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역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기금적립이 625억 원인가요?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예. 현재 적립금이 625억 9,500만 원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1,000억 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예. 2022년도 말에 928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6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진이 되면 2025년 말이면 없어지겠네요?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올해 다른 기금에서 이관된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300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정갑영 위원 : 알겠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래서 지난 위원회 회의 때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무처에서도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은 국회지정사업 3개 단체의 보고 시간입니다. 원래 2시 50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2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회의 때도 국회지정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엄밀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그냥 국회에서 지정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된다는 상황이 안 되도록 조금 더 엄밀하게 확인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훈경 위원 :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작년 국회지정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위원님들께 모니터링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올라왔던 건도 그렇고요. 사실은 정종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모니터링 요청이 안 왔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을 보고 싶었는데 여쭤봤더니 정종열 위원님도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고 저도 모니터링 요청을 못 받아서요. 공연이 진행되기는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떻게 되었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작년에 실시했는데 이번에 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이것은 기타 제안인데요. 국회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한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서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공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 중 하나인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았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장인주 위원님을 포함해서 3인의 외부평가위원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셨고요. 각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4년도 국회지정사업 어반브레이크 사업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하고 이어서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회 장원철 대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어반브레이크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국회지정사업으로 들어왔고요.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국회지정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억 원, 2021년에서 2023년에는 1억 원 그리고 올해는 2억 원이 배정되었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이고 장소는 코엑스 B홀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무처 검토 의견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목적은 국제적인 스트리트 아트, 어반아트, 아트 토이 장르 작가들을 소개하고 국내 작가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 구성은 갤러리 부스, 아티스트 부스, 특별전, 브랜드북, ESG 아트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라이브 드로잉, 컴페티션 퍼포먼스, 라이브 페인팅 등 여러행사가 있고요.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 2,300만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 내역은 대관료가 1억 원, 임차료 5,000만 원, 용역비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300만 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안전보험이나 회계검증 수수료 등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준용해서 투명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큰 만큼 행사별 안전관리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환류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나 사무처 담당 직원과 위원님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페어의 의미가 있는 미술시장 구축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의 매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요. 제가 확인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사자한테 보고를 받죠.

배은주 위원 :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사무처가 이 사업을 받게 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용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회 장원철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반브레이크 운영위원회 장원철 대표 오셨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장원철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준비하셨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반브레이크는 올해 5번째를 맞게 되고요. 그동안 시각예술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영역에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트리트 아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고요. 장르 구분을 두지 않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선발하고 다양한 콘텐츠와의 콜라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트페어보다는 아트페스티벌을 지향하고 있어서 조금 더 퍼블릭하게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각예술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주요한 콘셉트는 작년 예술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체적인 공간 동선에 대해 외부 공간전문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조닝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동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반브레이크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올해 시각예술을 조금 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어반브레이크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특별전에서는 그래피티아일랜드라고 해서 저희가 신안군에, 일본의 나오시마 같은 그래피티섬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특별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설을 AI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특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웹툰을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과 콜라보레이션으로, 미디어아트와 음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저희들은 다양한 콘텐츠의 영역들이 시각예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ESG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각예술이 담당해야 될,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했던 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젝트가 올해는 조금 더 글로벌 프로젝트로 추진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영재 아티스트들과 함께 환경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그려내고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시각예술로 풀어내는 환경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반브레이크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티스트 오픈콜인데요. 올해부터는 글로벌 오픈콜로 확장해서 국내의 아티스트 외 해외 아티스트들까지 확장하여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7명의 아티스트를 발굴했고 그 중에 34명이 한국의 아티스트인데요. 이들에게는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큐레이션과 기획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37명의 아티스트들의 면목을 보면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정말 활동들을 잘하고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아티스트들을 선발해서 발굴하고 시장에 알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저희 어반브레이크가 존재하는 주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 그리고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URBK랩이라고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연구소 같은 개념의 랩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에게 지속적으로 IP를 갖다가 사회에 시각예술로 확장할 수 있는 후속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4번의 어반브레이크를 하면서 3,000여 회 정도의 언론보도와 내부에서도 다양한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어반브레이크는 조금 더 시각예술계의 독특한 축제로서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 전체의 연 단위 방문자 수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아트페어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 판매금액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전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다보니 아트페어의 좋은 것은 다 넣으셨어요. ESG와 장르 통합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의 융복합까지요. 그래서 이 예산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을 이 페어에서 진행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지?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첫 번째 해에 1만 5,000명이 방문했던 것에서 지금은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트페어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갤러리의 비중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갤러리에게 부스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아티스트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에코티라는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시각예술의 디지털로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ESG프로젝트는 저희가 3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시키는 게 저희들의 주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런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잘 기획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작년에 40억에서 50억 정도 판매되었고요. 갤러리 판매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배은주 위원 : 40억에서 50억은 판매한 매출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작가들 판매입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갤러리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갤러리 판매는 집계를 안 하고 계세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이 참여하거나 개인이 참여했을 때 부스 비용을 별도로 받으시는지? 받으면 얼마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40~50억 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부 작가 개별판매인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 주최 측에서 수수료를 받으시는지?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어반브레이크에 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갤러리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고요. 갤러리에게는 저희가 부스비를 받고 공간을 팝니다.

김미라 위원 : 얼마를 받으시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A부스가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저희가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할 때는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콜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작가가 참여합니다. 이때도 저희가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김미라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갤러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부스비가 없고 판매가 되었을 때 판매수수료는 받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일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그 수수료 비율이 얼마인가요? 딱 정해져 있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작가마다 달라서요. 토이 작가도 다르고요. 미디어 작가도 다르고 페인팅 작가도 다 다릅니다.

김미라 위원 :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판매수수료 수익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6:4, 7:3 정도가 됩니다.

김미라 위원 : 입장료 티켓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얼마인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저희가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내부적인 일이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수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상업적 활동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질문을 드렸고요. 저로서는 사실 이 사업이 어쨌든 아트페어의 형식을 갖고 있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전업 작가를 꿈꾸는데 전업 작가라고 함은 자기가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이 판매로 이어져 그다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이 행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랬을 경우 이것이 아르코 지원사업의 성격과 결이 같은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지원사업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지원사업들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회 지정으로 하시는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것이 아르코에서 해야 하는 지원사업인가? 이런 것은 한 번 체크를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받으셨어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1억 원을 받으셨잖아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맞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은 또 2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됐던 특별한 사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얼핏 들었을 때 작년에 인천에서 저희와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동일한 사업을 두 곳에서 한다고 오해하셔서 “동일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라 위원 :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물론 페어의 성격을 띠기는 합니다. 갤러리들에게 일부의 비용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반브레이크를 그동안 거쳐 갔던 아티스트들이 200여 명이 되고요. 저희가 오픈콜 공모를 하면 1,000여 명의 작가들이 지원하는데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반브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게 꿈인 작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냐하면 어반브레이크에 나와서 2년에서 3년 동안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원사업 기관의 성격상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을 매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 어반브레이크 행사를 함에 있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 이를테면 5만 명 정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5만 명 중에 반 정도가 티켓팅을 하면 2만 5,000원이라고 하니까 티켓 수입이 6억 정도가 넘고요. 그다음에 40억 정도가 판매되었을 때 거기의 40%라고 하면 꽤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10억을 훌쩍 넘는 범위의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대관료 1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가들이,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등용을 하거나 화랑에 소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어반브레이크 행사에서 전체

적으로 이것을 유지 및 운영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나요? 저희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가 BEP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반브레이크에서 얻어지는 매출에 대한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입장객들의 유료 티켓 입장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위원님께서 꼭 BEP를 도달하라고 저에게 당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BEP 도달이 목표고 그래야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4회째 개최를 하면서 세계의 많은 스트릿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독보적인 하나의 시각예술 분야의 큰 행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올해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각 위원 : 운영위원회가 개인 단체인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민간입니다.

김진각 위원 : 법인격인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법인격입니다.

김진각 위원 : 사단법인?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아직 사단법인격은 아니지만 법인격의 단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진각 위원 :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술위 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국회에서 돈을 따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김진각 위원 : 국회에서 따온 것을 예술위가 승인을 해달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행사가 갖는, 페스티벌 식의 접근인데 취지는 이해를 하고 우리 신진작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작품을 소개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갤러리에게 돈을 받고 입장료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지정사업이든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갤러리로부터 받는 돈 그리고 입장료가 꼭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점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저희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콘텐츠의 결과 한국에 있는 갤러리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보다 올해 갤러리 숫자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참가하는 갤러리의 숫자가 작년의 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작업들, 물론 틀린 작업이 아니고 다른 작업들과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이

쪽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받아서 갤러리의 비중을 올해는 반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무라카미 다카시의 AI 특별전은 저희가 밖으로 빼서 무료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공공성과 기존에 저희와 맞지 않게 갤러리가 참여해서 일반적인 아트페어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수익이 안 맞는 것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펀드레이징을 하든가 해서 국가 돈을 안 받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국가의 돈을 받아서도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데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고민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한국화랑협회에서 하는 아트페어. 대표적인 아트페어죠. 사실 미술은 미술시장이 형성되어서 상업예술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 행사. 어반브레이크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일반 아트페어와 비교했을 때 어반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차별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이게 공공으로 가고자 하는, 공공의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을 모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일종의 또 다른 아트페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수익 구조가 있고 여기에서 많은 판매 수익이 나고 지원금의 9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순수예술 쪽에 가까운 쪽으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브리지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예술경영이나 미술시장 쪽으로 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에게 이해시키려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가치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한번 오셔서 어반브레이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작업들을 보시면 기존에 아티스트들이 화랑미술제 등 일반적인 아트페어에 나가는 성격과 맞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길거리 예술이라는 스트리트 아트로만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는 아티스트의 영역을 되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타투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시각예술로 확장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툰을 제작하는 아티스트가 시각예술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러스트 아티스트들이 시각예술로 확장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영역의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성장시키고 있고 그들만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어반브레이크에서만 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분명 유니크하게 다르다는 게 저희를 방문해 주셨던 분들의 평가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사실은 단순히 젊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젊은 결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정말 키아프도 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라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랑의 수를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법인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아닌 것이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은 주식회사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법인입니다. 법인격의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임의단체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맞습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여쭤보면 화랑의 참여 비율을 반으로 줄이겠다거나 또는 이 작가를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작가가 신청하면 이 작가는 참여해도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조직위가 있습니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조직위가 있고 운영위가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조직위는 외부분들인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외부의 분들입니다.

김미라 위원 :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4년을 지원 받으셨잖아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받으실 생각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최대한 빨리 자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런 것은 계획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어떻게 해서 언제가 되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야죠. 빨리라고 하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요. 올해 지원이 들어가면 5년차 아닙니까? 5년 동안 1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이름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아마 대표님도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2~3년 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언제쯤이면 지원 없이 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성과가 좋다는 이름으로 매해 지원을 받는다면 다른 단체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4년, 5년을 지원받는 일은 어반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을 받든 안 받든 향후 2년, 3년 안에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실지?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사전에 심의를 다 받습니다.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효과성이나 운영조직위의 탄탄함을 다 평가하고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회지정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예술 생태계 안에서 이런 형태의 특혜, 비판적으로 말하면 폭거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심의를 받고 떨어진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한 좌절을 얹혀주는 하나의 특정 사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4~5년 계속 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양심. 이런 것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에 정말 심각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에게 온 PPT를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 재미도 있고 예술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몇몇 사람들의 별표 5개나 4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어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일부 받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와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나름대로 최대한 공익성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니까요. 국회에서 지정해서 한두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4년차까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년에는 올라와도 아예 심의하지 않을 겁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도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국회 지정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3회 이상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 2024년 국회지정사업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 후 이어서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박소현 주무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64페이지 보고안건 2024년 국회지정사업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3년 12월에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의결이 되었고 그 이하는 진주시와 경상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경과 정리입니다. 2월에 관련된 제작 계획서를 입수해서 검토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명이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 하나의 문서에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이라는 명칭과 진주대첩 재현공연이라는 사업이라는 용어가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0월이고 이 기간에 9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업 장소는 진주성입니다.
그리고 진주대첩 재현공연의 사업목적은 진주대첩 승전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서 호국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진주시의 대표 공연으로 독창적인 야간 재현공연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진주시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행사의 주관기관은 극단 현장, 큰들문화센터, (사)한국예총진주회 등 3개 단체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7,200만 원이고 문예진흥기금 3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 즉 진주시로 지원하게 되고요. 진주시에서 3억 6,000만 원을 시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1,200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표는 3개 행사에 문예진흥기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투여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업내용으로 크게 3개 행사가 있습니다. 실경역사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하고 출연진의 규모가 나와 있으며 초연은 2002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의암바위 수상특설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당극 남명과 뮤지컬 촉석산성아리아의 경우에는 8월과 10월에 각각 진행되고 위치는 진주성 근처의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부근에 특설무대를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 검토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사업목적 자체는 야간관광 대한민국 대표 공연을 육성해서 진주시만의 야간관광 특화 도시 콘텐츠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동 사업이 뮤지컬 의개논개와 촉석산성아리아와 함께 오페라 처사남명 등 3개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오페라 처사남명의 주관처가 저희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단체로 확인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요청을 했고 이것이 마당극 남명으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및 예산 내역 쪽에서는 시비 3억 6,000만 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50% 이상은 진주시가 부담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문예기금에 맞는 안전보험이나 회계검증수수료 등과 관련된 보조금운영기준 준용에 대한 부분과 회계 투명성 부분을 요구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관리 방안이나 홍보추진 방안, 프로그램 환류 부분을 확인했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고요. 향후 일정으로 오늘 보고를 받고 이후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 등을 상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는 3개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별도로 2024년도 진주대첩 재현공연 홍보성과 부분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늘 진주시에서 시행주체측과 3개 단체의 관계자분들 총 5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주시에서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의 담당관이 오셨고요. 극단 현장의 고능석 대표님, 큰들문화센터의 진은주 사업부장님, 한국예총진주지회 정우열 예술감독이 참석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입장시켜서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먼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이번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이 3개 사업이 어떻게 1억 원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1억 원씩입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희가 국회지정사업 진주대첩 재현공연 관련해서 3억 원에 대한 보조가 결정돼서 세부 내용을 진주시청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수익이 어떻게 되고 3억 6,000만 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뮤지컬도 1억 원, 마당극도 1억 원, 산성아리아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써놓고 3억을 채운다면 기획서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거나 그냥 3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1, 1, 1로 쓴 것 같아서요. 3억 원을 다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국회지정 쪽지가 들어갈 때 보니까 진주시에서 지역관광 문화예술 브랜드 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총 4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진주시에서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국회에서 3억 원이라고 하면 3억 원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전체 사업의 제목은 오페라죠.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인데 그것이 빠지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그 오페라를 담당했던 단체가 부정수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 팀이 빠지고 마당극 팀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맞습니다. 금년 1월 말에 경찰 수사 결과 통지가 왔는데 검찰로 일부 송치가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외 시켜야지 수정해서 온 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어쨌든 진주시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반영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반영된 내용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죠. 수정을 해주면서까지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나요?

김미라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 보면 지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배정된 것은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맥락인 것이죠. 내용을 보거나 뭘 보는 것은 의미가 없

는 거잖아요. 마당극이어도 1억 원, 오페라도 1억 원 등 그냥 정해주면 '예'라고 하고 해야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관계자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위원장님. 그러니까 진주시에 국회지정사업이니까.

정병국 위원장 : 국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겠지만 국회에 제출된 공연 계획에 부정수급 단체가 공연단체로 기재 되어있던 것이 문제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국회지정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3개 사업이 국회지정 당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개 사업이 부정수급 단체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수정해서 들어오라고 해요.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 이 사업명 자체가 진주대첩의 재현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오페라 단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주시의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장해 나가는 진주대첩 재현공연사업 안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n분의 1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n분의 1 때문에 나머지 사업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벌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회지정사업 자체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무처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그 1개가 문제가 되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으니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3건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마당극 남명이 바뀌기 이전에는 부정수급자가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빼야죠.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수정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저희는 부정수급 단체니까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준 것이고요. 진주시에서는 3억 원을 지정교부로 했으니까 이 사업의 내용 하나를 바꿔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제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회를 통해서 왔는데 국회에 신청할 당시에 공연계획에 부정수급 단체가 공연단체로 기재가 되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확인이 되었으면 그 단체는 제외, 그러니까 그 단체의 예산은 빼고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지금 상태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닌 상태고요.

이훈경 위원 :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첨언을 드리자면, 위원님과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사업 자체가 '진주대첩 창작오페라'라는 명분으로 올라왔는데 정작 그중에 오페라였던

처사남명이 부정수급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페라 사업도 아닌 것이고요. 그중에 뮤지컬과 마당극이 섞여 있으니 이것도 뮤지컬 사업인가 마당극 사업인가 오페라 사업인가도 불분명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입장 요청해 주십시오.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 관계자 누구신가요?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사업 설명에 앞서 명칭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진주시에서 국비지원 건의 시 사업개요서 상에 사업명은 진주대첩 재현공연으로 건의가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당시 개요서 상에서는 수행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저희 남명 그다음에 촉석산성 아리아, 의기논개 등 주제 공연에 대해서만 건의를 했던 상황인데 국회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명칭이 임의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는 부정수급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처사남명 단체에서. 그게 확정이 1월에 수사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명칭이 변경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진주대첩 재현공연으로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까지 넣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했을 거라는 말이죠. 제목을 바꿔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꿨다는 말이죠.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주시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했든 간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국회지정사업으로 넘어온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만 내년에 다시올라오면 저희들이 교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예.

정병국 위원장 :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심사하는 과정 이후에 결정된 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 민・관・군이 힘을 합해 치열하게 맞서 싸운 그날의 흔적이 아직 진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진주시는 역사의 흔적과 강인한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실제 역사 현장을 무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합니다. 3개의 공연이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중기 실천사상에서 시작해서 제1차 진주성 전투 그리고 제2차 진주성 전투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불굴의 진주정신과 호국충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연프로

그램 하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왜 진주대첩인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기조로 한 문화예술분야 2024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발맞춰 그간 품격 있는 공연을 위한 자생 노력과 문화예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회지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TV드라마 ‘연인’, ‘고려거란전쟁’, ‘벌거벗은 한국사’, 영화 ‘노량’ 등 사극과 역사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불굴의 진주 정신을 브랜드화하기에 적기를 맞이한바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되어왔던 3개의 공연을 진주대첩 재현공연이라는 하나의 사업 아래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당극 남명입니다.
임진왜란 및 진주대첩에서 활약한 의병들과 그 가르침이 된 남명조식 선생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마당극으로 진주성 내 임진대첩계사순의단 특설무대에서 문화재 야행 기간 중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행사는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큰들문화예술센터입니다.

(마당극 ‘남명’ 영상 시청)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다음은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입니다.
진주대첩을 주제로 당시에 긴박했던 전투와 승전 상황을 창작뮤지컬로 구성한 작품으로 진주성 내 임진대첩계사순의단 특설무대에서 개천예술제 기간 중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개천예술제 예술감독이신 정우열 감독님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공연은 개천예술제 주관단체이자 촉석산성 아리아 초연부터 지금까지 개최해온 (사)한국예총 진주지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 영상 시청)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마지막으로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논개’ 입니다.
충절의 상징인 의기논개를 테마로 실제 역사 장소인 의암바위에서 실경뮤지컬 ‘의기논개’가 펼쳐집니다. 진주 논개제 기간 중 3일 개최할 예정으로 수행사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극단 현장입니다. 의기논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논개’ 영상 시청)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다음은 홍보 방안입니다.
온·오프라인을 걸쳐 가용가능한 홍보 매체를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해당 공연은 진주성에서 펼쳐지는 야외 공연으로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간별 역할에 따른 인력배치와 상황실 운영으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통행량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예방하고 섹터별 인원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요원을 항상 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과 상징적인 장소에 관한 스토리를 현대적인 예술 양식으로 표현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주대첩 재현공연은 실제 역사의 장소에서 공연을 체험하고 함께 참여한다는데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상설 개최하여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관람객의 문화예술적 감성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으로 예산 편성이 확정되었고 지난 1월 국회지정사업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첫 공연프로그램인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논개’가 오는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에 개최될 예정으로 사업비 교부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기금 교부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공연이잖아요? 재공연이면 이미 콘텐츠, 시나리오, 의상 등 다 나와 있잖아요. AR과 MR까지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재공연이 1억 원으로 산정된 것은, 그러니까 새로 창작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재공연 예산이 조금 과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의상 등 다 가지고 있는데요.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래요? 보니까 2002년 초연이고 2018년 초연인데요. 보통 뮤지컬을 만들면 제작해서 재공연을 하는 거지 어떻게 대여를 해서 하나요?

고능석 (사)극단현장 대표 : (사)극단현장 대표 고능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새로 다 제작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하고 보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을 책정합니다. 소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비에 출연료, 연출료, 저작권료 등이 다 포함되고요. 특히 우리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강 위에서 하기 때문에 수상객석이라서 특수하게 공병대가 강을 건널 수 있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기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배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발표 중에 마당극 남명은 문화재 야행기간 중에 4회를 공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재 야행은 제가 알기로 문화재청에서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진주문화재 야행을 찾아봤더니 문화재 야행 기간은 3일이더라고요. 여기에는 4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야행 행사를 지원받아서 원래 마당극 남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 지원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문화재 야행 기간 중에 지원을 받는 사업은 당초부터 원래 아니었고요. 저희가 논개제 기간 중에 의기논개를 개최하고 10월 축제 기간에 아리아를 개최하는 것처럼 축제 동반 행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당극 남명을 문화재 야행 기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설공연으로 저희가 확대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 시기에 몰아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시기별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부가적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축제와 그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마당극 남명을 문화재 야행 기간 중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앞 질문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기논개 같은 경우 의기 논개 축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마당극 남명은 야행 기간인 것 같고요. 아리아도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등 모두 축제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8월, 10월이거든요. 시기도 다 다르고 장소도 모두 다른 곳에서 하는 3개의 축제를 묶어서..... 그냥 축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개가 묶여진 축제 같은데 이것을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PT를 발표하실 때 “왜 진주대첩인가?”에서 3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진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의 2024년도 정부안 발표에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왜 진주대첩인가?”에 함께 묶으셨는데요. 이 사업이 모두가 누리는 문화와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먼저 3개의 공연을 하나로 묶은 것은 주제의 동일성이라든지, 물론 무대도 다르지만 전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공연입니다. 진주성 안에 있는 의암, 진주성 안에 있는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고 주제도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을 주제로 해서 시기별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게 되었고요. 2024년 모두가 누리는 문화라는 기조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사실 지방에서는 이런 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는, 특히나 야외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유일무이한 공연들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이런 공연을 펼치게 된다면 진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상설공연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였다면 같은 시기에 3개의 공연을 묶어서 정확한 목표성을 보여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각자 다른 축제에 참가하면서 다른 시기에 공연을 올리는 것이 말씀하신 목표성에 부합하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9일에 걸쳐서 매일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진주시 입장에서는 축제 기간마다 이렇게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차별 없는 문화 혜택을 언급하실 정도면 3억 원은 진주시가 스스로 해야하는 게 아닙니까? “진주에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기회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혜택을 많이 베풀 수 있다면 시에서 직접 해야죠.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이것은 여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진주시 예산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4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특히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의기논개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반 이상 삭감되어서 횟수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문화 분야는 삭감이 안 된 데는 없고요. 그러면 올해 한 번 하는 거죠? 내년에 또 이것을 갖고 오시지는 않죠? 국회에 가서 또 달라고 하지는 않죠?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국회를 통해서 지정사업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죠.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죄송합니다. 제가 일개 담당자라서요. 말씀은 잘 전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말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남는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오페라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소멸도 방지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고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국회지정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진주가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주가 받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설득력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부족한 문화적인 장르, 오페라였던 겁니다. 오페라를 창작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 주는 게 아깝지 않겠다.”라고 국회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말이죠. 그게 빠지고 뮤지컬 2개하고 마당극을 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승인해줬던 의원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사업일 것인가? 우리 예술위원회가 그냥 받아서 해 주는 것이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취지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미 위원 : 무엇보다 축제 안에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의 그동안 축제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해서 이것을 갖다가 진주시를 브랜드화한, 예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창작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내용과 기획서를 보자면 그냥 축제 안에, 진주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술위원회를 동원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저는 유등축제 등을 많이 봤는데요. 아까 한 내용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왔다 갔다해서 그게 공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민속촌 등에 왔을 때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지 그게 오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고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공연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과연 이쪽에 어울리는 성격의 공연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축제 기금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너무 진주를 잘 아네요. 의암바위는 너무 위험한데 그 좁은 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안전이 걱정되고 모든 면에서 그냥 축제를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먼저 축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축제 동반행사로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축제 동반행사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약간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등축제도 그렇고 저희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개천예술제는 73회인데요. 그쪽 예산은 사실 깎이지 않았어요.

정병국 위원장 : 보세요. 이게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의원님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진주대첩 재현공연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으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진주시에서는 진주대첩 재현공연 사업으로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고쳐서 넣었냐? 이것은 진주대첩 재현공연으로 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아르코의 문예진흥기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넣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오페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면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해 드릴 수가 없어요. 국회의 뜻이 그것이거든요. 창작오페라 제작 사업에 돈을 쓰라고 했는데 그중에 창작오페라 처사남명으로 올린 단체가 부정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 저희가 잘 봐줘도 이것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페라 처사남명 1억 원에 대한 예산은 교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진주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서 "단체를 바꿔라."라고 한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기고 우리가 임의로 단체를 지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이 단체에 주라고 했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임의로 바꿔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2억 원은 저희들이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이게 창작이 아니잖아요. 창작입니까?

정정숙 위원 : 재공연입니다.

정갑영 위원 : 재공연이죠. 창작오페라가 아닙니다.

정종열 위원 : 재공연을 할지라도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지 않아요. 연출을 바꾸거나 변화를 주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공연을 다시 한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아까 현대적인 어떤 예술성을 덧붙인다고 하셨는데 계속하셨던 것에 어떻게 덧붙인다는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술위에서 지원할 때 재공연되거나 그냥 단순 반복되는 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연을, 그것도 3억 원이나 들여서 재공연을 해야 하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진주시에서 이해하셔야 할 것은 문예진흥기금이 단순히 지역 축제라고 모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멸지역을 살리기위해 소위지역에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부정수급자로 해서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억 원 중에서 오페라 처사남명으로 올라온 1억 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진주시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담당자께서 가셔서 꼭 말씀을 하세요. 문예진흥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사업이다. 내년에 올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겠다고 꼭 가서 말씀을 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예,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로 발표해 주신 것을 봐도 그렇고요. 진주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기도 하고요. 물론 공예 쪽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단체들의 실력은 저희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어떻게 창조적인 것을 플러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지만 지금 실력 있는 감독들이 계시고 공연자들이 계시니까 2개의 뮤지컬을 할 때는 조금 더 창조적인 부분을 첨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현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보고된 내용 중에서 지원금 3억 원 중에 2억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지정사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내용 보고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의 보고 후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 남종진PM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호 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이어서 국회지정사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은 2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요. 행사기간은 3월부터 7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3군데입니다.
사업일정을 간단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경연대회 예선 과정이 4월 말부터 6월 초에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해외 부분에 대한 예선은 영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마포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주니어 갈라 부분은 특이한 부분인데요. 지역 쪽의 공연으로 7월 21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국내외의 신진 무용수 발굴과 신진무용가들의 국제무대 진출 기반 마련입니다.
주관기관은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입니다. 협력기관 5개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2,500만 원이고 이 중에 문예진흥기금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사무처 검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들어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속기록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체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2024년도에 4명의 정규직 전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추진방향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공연 콘텐츠 송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5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예술인 심사위원 초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2022년 대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양화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성격이 콩쿠르인지 페스티벌인지 불분명하다.” 주는 콩쿠르입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교육과 교류적 성격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향후 행사의 발전방향과 향후 행사진행을 위한 재정확보계획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서 별첨자료1의 1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로드맵과 중장기발전방안 그리고 이후 프로젝트 재원 조달을 위한 계획 반영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관객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마케팅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계획서 별첨1 자료의 13~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기타 내용으로 검토한 내용은 심사 회피 제도와 같은 운영으로 해서 심사제도 개선,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부분과 함께 결과발표 게재 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공연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기금 외 사업수입, 민간재원, 자부담 조달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일부에는 세계 유수의 무용기관 연수 기회 제공이나 월드 갈라 출연 등 무대 경험 제공 그다음에 입상 후 활동내역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의 요청사항으로 불공정 방지 부분과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에 필요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69페이지 향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2는 그동안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출신 주요 무용가가 어떤 부분인지를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작년에 3인 위원님들의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정리한 내용이 유인물로 책상에 놓여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일단은 사무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국회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연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불문율로 만들었으면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체계가 안 잡힙니다. 진짜 1년 농사를 지으려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곳이 80% 이상인데요. 국회를 통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4회, 6회 등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2회 이상은 못 받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불문율로 만들어 놓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2번 이상 올라오는 것을 심의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모든 장르별 협회들을 보면 갈가리 찢겨져서 대회를 다 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국 생색도 나지가 않고 그 단체의 연명수단으로 하는 축제들이나 대회는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협회가 하나 되어 큰 대회라든지 축제를 ㅁ만들 때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방향성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도 만들고 세계적인 축제도 만들고요. 에든버러 축제처럼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데요. 같은 장르 내에도 대회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축제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묶도록,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보수에 나가 있는 부분이 1억 5,000만 원인데 운영인력을 300만 원씩 해서 1년 간 2명을 했네요. 이게 왜 필요한지? 또 보수 부분의 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 인력은, 우리가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부분은 사무국에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서 자료를 받든지 하고요.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조교를 두고 유지하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자 분에게 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채용된 인력의 급여명세서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단체는 보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친인척 심지어는 자녀를 넣은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관계자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울국제문화교류회 남종진PM 오셨나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도착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발표해 주시죠.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소개를 위해서 참석한 남종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용콩쿠르입니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는 지난 2002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송파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모토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교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있습니다. 본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지난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발레를 비롯한 4가지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는 대회로서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무용대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운영 방향은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경연입니다. 이 경연은 국내외 신진무용수를 발굴하여 미래의 무용 주역을 배출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경연이 시작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해외 콩쿠르에 경제적 사정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국내 무용 꿈나무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콩쿠르는 경연 이외에도 젊은 무용수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와 신·구 무용수 또 국내외 무용수들의 교류라고 하는 2가지 또 다른 목표를 함께 곁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많은 신진무용수들을 배출했습니다. 2004년도에 발레와 현대무용 부문의 경연을 시작으로 그 후 경연 부문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도에는 콩쿠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제2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를 코로나 엔데믹 이후 대체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원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이루어낸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0여 명 정도로 2가지 부문에서 경연을 시작한 이후 20회 대회인 지난해 대회는 참가자 수가 국내외에 모두 880명 정도로 크게 신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경연을 통해서 현재 국내외 무용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국제적인 지명 무용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수를 발레 중심으로 대략 추정해 보면 대략 200여 명의 지명 무용수가 배출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을 보면 러시아의 마린스키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그리고 영국 국립발레단, 로열 발레단 등을 비롯해서 몽골과 중국 심지어 쿠바 등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무용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들도 다수 있습니다. 국내의 양대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를 비롯한 주요 무용수들은 대다수가 본 콩쿠르를 거쳐서 무용계 중심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밖에도 국립현대무용단에서도 많은 무용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안무가로 활동하는 무용인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학계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도 있습니다. 또 무용 산업계로 진출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용수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국제무용콩쿠르의 운영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콩쿠르는 미래의 무용 주역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아시아 대표 무용콩쿠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쿠르가 배출한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서 경연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콩쿠르 행사가 열릴 때면 무대 공연 등을 통해서 역대 수상자들을 초청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신·구 무용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안목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콩쿠르의 중기 비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본 콩쿠르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가서 질적인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대회를 지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극동지역에서 운영되는 대회다 보니 해외 참가자들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분명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저명 심사위원들의 참가를 확대해서 콩쿠르의 국제성, 객관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워크숍을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는 함께 곁들여서 시행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복원해서 본 콩쿠르가 지향하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제교류의 기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콩쿠르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짚어봤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서 국내 참가자의 국제경연 참가비용 부담을 매우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용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특별하게 광주광역시에서 한 차례 무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4월 말부터 5월 초에 해외 참가자와 안무 부문 참가자에 대한 영상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예산 경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본 행사인 본선 경기는 7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이후인 7월 21일에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인 주니어 갈라 즉 본 콩쿠르 주니어 부문 역대 수상자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을 했고요. 아울러서 지방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집행위원단과 콩쿠르 심사위원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인 허영일 위원장께서 맡게 되겠고요. 심사위원장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주역 무용수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한 케빈 맥켄지를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단은 4개 부문에 걸쳐서 국내 무용인 10인 내외로 구성되고요. 심사위원단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예선은 부문별 5인, 본선은 부문별 7인에서 9인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부대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세계민족춤페스티벌과 컨템안무페스티벌 그리고 월드갈라 등의 3차례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 신·구 무용인이 한 무대에 올라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무용 주역들이 중견 무용수 그리고 역대 입상자들의 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무대로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발레, 컨템, 민족무용 등 다양한 춤의 세계를 함께 보면서 무용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회 공연으로 예정하고 있는 주니어 갈라는 역대 주니어 수상자가 꾸미는 갈라 공연으로 이 무용수들이 콩쿠르를 거친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무용 공연 콘텐츠를 지방에서 관람하며 향유 하게 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방향.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립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치르는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에 저희 콩쿠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달리 올해 지원시기와 심의시기가 연말에 가깝게 진행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사업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꼭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을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함께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회의 특별예산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이 조금 일찍 결정이 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했던 공연예술창작주체 프로그램 공모를 저희들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들이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포기한다면 이 부분이 다른 공연예술단체에 배부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포기한다면 공연예술지원사업의 파이를 조금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의 경우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기업과 개인들의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번째로 집행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집행위원회 명단에 75인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문 자체가 4개다 보니까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문별로 집행위원을 따로 두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40인 정도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해 줬던 위원님들께 “그만두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지만 현재 활동이 여의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위원이라든가 고문 등의 식으로 돌리고 실제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현재 재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 인원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콩쿠르 홍보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콩쿠르는 아르떼 TV를 통해서 제작되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 공적 혹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콩쿠르를 부단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콩쿠르 자체가 시즌 사업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내내 상근하는 직원들을 여러 명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상근 직원들을 4명 정도 둬서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연장 환경에 대한 지적들은 대개 참가자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경연을 치르다 보니까 극장을 거의 통으로 빌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많고 대회 규모가 크다보니 여전히 많은 불만들로는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든가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극장 측과 협의해

서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게 및 연습공간을 가능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더 많은 말씀을 직접 드리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2003년에 시작하셨죠?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2004년입니다.

장인주 위원 : 1회가 2004년이었나요? 그래서 2023년에 20주년 공연을 하신 거군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그렇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저 같은 경우 초창기에 평가하기 시작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벌써 3번째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개가 무량한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하실 때부터 국회에서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었나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국고 사업을 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콩쿠르가 생기면서 거기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고사업에서 공모사업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고가 공모로 밀려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5억짜리 예산이 2억 5,000만 원까지 삭감되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관점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서 국회로 가보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콩쿠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제콩쿠르 집행위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2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고사업이니까 그냥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겪은 결과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얘기니까요.

장인주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국회지정사업으로 지정되신 게 몇 년부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 : 저희가 국회지정사업으로 된 것은 아마 9년 전인가 10년 전입니다.

장인주 위원 : 정확한 연도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저희들 사무국에 인력들도 그만큼 근무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래도 허영일 집행위원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국회지정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몇 년부터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한국문화예술인연합

허영일 집행위원장 : 제가 하도 많은 일을 겪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아까 업적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콩쿠르 출신 무용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중에 군 면제를 받은 분들이 계시죠. 남성 참가자들 중에서요. 그 통계도 혹시 나와 있을까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통계는 사실상, 굳이 통계를 따로 내서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예술체육요원특례가 적용된 것이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발레 부문에서 남자 2명 그리고 컨템 현대무용 부문에서 2명.

장인주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발레 분야에서는 몇 명이고 현대무용 분야에서는 몇 명이 군 면제를 받았는지? 이게 콩쿠르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지금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서 인정받고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통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23명, 2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 : 제가 얘기를 해 드리죠. 우리가 2011년부터 받았기 때문에 작년까지 하면 4명씩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현대무용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명씩 받아서 40명인데 1명을 빼면 39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받았기 때문에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지금 통계수치를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의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44명이 나왔고요. 지난해에는 현대무용에서 1명이 줄어서 3명이니까 47명이 되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인주 위원 : 이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리고 1회 때 그랑프리를 받은 ○○○○○○○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그분은 외국인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내국인들 가운데 발레로 1위나 2위를 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는 2회 출신입니다. 미국 톨사발레단 ○○○은 2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발레단 ○○○는 5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럿이 있습니다. 대부분 발레 출신의 경우 국내외 유수의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혹은 일부는 전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무용 같은 경우 아무래도 춤의 특성상 무용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나 안무가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인주 위원 : 아무튼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사회적인 기여도 부분에서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한국 무용수들이 해외로 가는 비용적인 면을 굉장히 절약한다는 걸 기여도로 기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여비를 사용하는 것에서 보면 해외의 심사위원이 오는 것. 당연히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해외 참가자들에 대한 항공권 제공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일부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특전처럼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 부분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제일 처음 저희가 서울국제콩쿠르를 세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받고 삼성에서 5억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발레단의 스타를 우리 콩쿠르 참여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요. 유럽 같은 데 바르나 콩쿠르나 로잔느 콩쿠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료가 20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는 항공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처음 삼성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항공료 때문에 못 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국제콩쿠르의 위상을 유지해야 해서 영상 심사에서 추천을 받아 뛰어난 무용수라고 하면 우리가 항공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시아콩쿠르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마련해서 항공료가 지불이 된 것입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수입원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건가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 국내는 20만 원, 해외는 200달러를 참가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경연이나 부대행사 가운데 유료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객 수입 정도가 그런 예산 수입으로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책정하여 계산해 보셨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수입이 얼마가 되셨을까요? 지금 이것은 예상이고 작년 같은 경우 20주년 때는 수입이 얼마가 되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지난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수입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모두 합쳐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니까 참가비가 얼마였고 몇 명이 참가해서 20만 원씩 해서 최종 얼마가 되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지난해에는 800여 명 정도가 참가해서 1억 6,000만 원인데요. 그 비슷한 선에서 최소값을 잡아서 예산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렇다면 끝으로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입의 거의 대부분 액수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으로 매월 300만 원씩 2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임이신거죠?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장인주 위원 :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지금 전문인력인 집행위원장과 행정인력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 상근을 한다는 전제하에 1년치를 잡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이외의 수입을 잡겠다고 해서 10개월 이상씩

잡았습니다.

장인주 위원 : 아니요.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운영 인력에 30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은 누구세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저와 집행위원장님입니다.

장인주 위원 : 지금 저라고 말씀하신 분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행정총괄팀장과 집행위원장 등 2명입니다.

장인주 위원 : 그리고 자부담으로 계약직 5개월 자부담이고 2개월 자부담해서 5명을 하시는군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예.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콩쿠르가 시즌 사업이다 보니까 콩쿠르 행사가 시작되는 시즌 때는 아무래도 참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계약해서 진행되는 요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해의 행사를 정리하고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상근 인력이 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10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낫겠다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무보수로 11년인가 12년을 봉사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7쪽의 앞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원신청 보조금으로 해서 보수에 관해 설명하고 신청금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신청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당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운영비를 댄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우리 문예진흥기금 사용 원칙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지금 그 이외에 금액이 누락된 부분인데 추가로 저희 자부담이 운영될 것이고요.

정갑영 위원 : 자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6억 5,000만 원을 신청하신 가운데 1억 5,000만 원이 보수에 관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떠나서 12개월씩 2명이 일하시는 직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운영비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원칙에 맞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이렇게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의례 2024년, 2025년, 2026년은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수익은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민간 재원도 3,000만 원, 2,900만 원, 2,800만 원으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체부담경비도 2,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8억 2,500만 원이 드는데 항상 6억 5,000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은 일종의 인건비라고 말하지만 조직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기금지원 원칙에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3년 운영계획이라고 한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 2024년은 사업수익이 얼마인데 내년에는 사업수익을 늘리고 그다음에는 더 늘리겠다. 또 민간재원을 펀드레이징 해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냥 8억 5,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은 항상 들어간다.

그리고 별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년으로 되어있지만 5년, 6년, 7년으로 잡으면 항상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올해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같이 왔지만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적하신 상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항목이 국제무용콩쿠르잖아요. 그런데 사업발표를 하시는데 사업일정을 보면 개막공연에 민족춤페스티벌이 있고 컨템포러리 안무페스티벌, 월드갈라가 있고 폐막식으로 해서 수상자 축하공연도 하고 끝나는데 주니어 갈라도 또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마치 페스티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예산도 부족해서 심사위원도 초대하려면 항공, 숙박비용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봤더니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공연이나 무용 분야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이런 콩쿠르를 하려면 보통 어느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했다고 뉴스에 나는 것은 그 콩쿠르의 위상 때문이지 주변의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많이 해서 그 콩쿠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콩쿠르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를 여쭙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도 한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콩쿠르면 콩쿠르에 집중하면 되지 무슨 교육이고 교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콩쿠르에 집중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자체수입도 좀 있으니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일종의 권고사항 내지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콩쿠르를 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배은주 위원 : 작년에 나왔던 의견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이 된 서울국제무용콩쿠르잖아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무용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문제를 직시하시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것을 올해 지원하고 교부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 동안 이 행사를 했고 여기에서 많은 예술가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 콩쿠르의 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시대에 맞게 서울국제무용콩쿠르를 예술경영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예술경영 컨설팅을 받으셔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재단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후원회를 결성해서 그 후원회에서 50%, 60%를 이 콩쿠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술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요. 왜냐하면 지금 예술현장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21년이 된 콩쿠르에서 누가 수상했다고 언론들이 그 예술가를 방송에서,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과 경영, 재원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세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상근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환에 대해서요. 그래서 4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을 빼고도 3명이 전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에는 12월 상근한 사람은 2명뿐이고 그중에 1명은 위원장님이세요. 그러면 상근으로 전환된 나머지 인력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근으로 전환시켜달라고 그랬던 것은 일을 하는 실제 직원들에 대한 전환이었지 위원장님을 상근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지난해에 지적을 받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상근이 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은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이고요. 직원들의 상근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의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요. 다른 직장이 있으면 옮겨가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요.

장인주 위원 : 국장님, 상근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대표이사로 되신 회장님은 보수가 없나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없습니다.

장인주 위원 : 상근이시기는 한데 무보수로?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상근이 아닙니다.

장인주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근으로 되어있거든요.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대표자는 국제문화교류회 소속입니다.

장인주 위원 : 이사회 허영일 집행위원장님만 상근으로 보수가 나가고 대표이사 김성재 회장님은 상근이기는 하나 무보수로 일하시는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종진 서울국제문화교류회PM : 예. 그러니까 콩쿠르의 이 사업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 콩쿠르를 운영하는 주체, 형식상의 주체인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콩쿠르의 모든 제반 업무는 집행위원장께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장인주 위원 : 알겠습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애를 쓰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와서 브리핑을 하시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신 건 잘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자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잘 이행하는 기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허영일 집행위원장 : 잘 들었고요. 제가 실은 올해도 상근으로 했지만 저희가 12월이 되면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는 내건 넣지 말라.” 그러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서울국제문화교류회라는 곳이 비영리 예술조직이잖아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예.

김진각 위원 : 그리고 이게 사실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 사업예산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구조로 20년째 끌어오고 있을까? 이게 만약,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미국의 비영리예술조직은 파산하고 이미 문을 닫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고지원이 안 되니까요. 국고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혼자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한테 손을 벌려서 기부금을 받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부담이 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후원과 기부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냐? 그것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물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국회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구조.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비영리예술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계획을 짜셔야 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이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 무용수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단체와 협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또 다른 살길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허영일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무용계에 끼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도 저 역시 이 사업을 국회지정사업 예산을 배정해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다른 무용계의 인사들이 상당히 저한테 항의를 했고요. "왜 거기만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한푼이라도 문화예술계로 가고 무용계로 가면 당신들의 몰이 많아지지 않느냐? 같이 손뼉을 쳐줘야지 그러면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시행되고 참여 숫자는 늘어났지만 유사한 콩쿠르가 생겼고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용계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장르든 보면 어느 대회가 생기면 또 다른 대회가 생기고 갈라지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무용계의 위상을 보면 20년을 해온 대표적인 콩쿠르라고 하면 세계적인 콩쿠르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지정 예산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드렸더니 무용계에서 저한테 반발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서울콩쿠르에 대해서 전부 다 안티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1년 내내 고생하고 준비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면 많이 되면 20% 정도입니다. 80%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허영일 집행위원장님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노력해서 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고 20년을 해 왔어요. 그러면 다른 무용계의 인사들이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기본 원칙과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번, 2번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분야에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두 번은 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그것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

서 당당하게 응모를 해서 그것을 따내든지 하는 게 과정이고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콩쿠르는 20년째 이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쭙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허영일 집행위원장 : 지금 저희는 국고사업으로 가려고.

정병국 위원장 : 예. 내년에도 만약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아예 접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 답을 듣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도 다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실 겁니까?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것은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접수 못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무용계나 단체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논리가 없어요. 앞에서 시 조차도,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예산을 깎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는 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을 주시면 올해까지 해 드리고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답을 해주세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제 나름대로는 국회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용계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 불확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최소한 자존감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년 심의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허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무용계를 통합해서 콩쿠르를 하나로 엮는 작업을 해 주세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국회지정사업으로 서울콩쿠르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속기록에 기록하고 올해 사업은 이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 2명 10개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게 우리 문예진흥기금 지원 원칙에 맞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허영일 집행위원장 : 그리고 살펴보면 10개월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정갑영 위원 :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행정총괄팀장 : 인건비 부분도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게 되면 6억 5,000만 원이 안 돼요. 금액이 줄어요.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는데요. 인건비 부분으로 표시된 것을 합쳐봤더니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을 포함해서인데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왜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인데 총액은 1억 9,50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대표라고 하더라도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편성 가능하게 하고 다른 일반기금에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에 대해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보고해주십시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024년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자리고 기획조정팀에 새로 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024년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오늘 구성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구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워크숍 때 나눈 말씀 이후에 이메일로 4인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기비전 소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소위원회 그리고 사업 관련 소위원회도 제안을 여러 건 주셨습니다. 더불어 TFT 구성에서도 주로 지원사업 관련 구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원사업 심의제도, 극장개선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TFT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해서 우선 소위원회를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경영전략 소위원회에서는 주로 기능과 과제로서 문예진흥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 그리고 중장기 전략, 경영전략 개선 등을 기능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 작년에도 있었던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를 연장한다는 차원에서 후원활성화 캠페인, 프로그램 개선 그리고 문화지표 개발과 세제혜택 도입 대책 마련 등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인 처우개선,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도출 그리고 사무처 직원 인권 점검 및 근무환경 개선도 담당하는 것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FT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예술창작사업, 문화향유사업, 공간 운영 등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 운영 개선은 사안 발생 시에 필요에 따라서 TFT를 구성할 것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보고는 이상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반영해서 다음 달 의결 안건으로 올려서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것 같고요. 특히 문예진흥기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경영전략 소위원회의 기능으로, 과제로 넣었다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게 반영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다만, 이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의 섭외 등도 반드시 활동할 때 포함돼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소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소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오늘 논의하는 것이 인원까지 확정인가요? 이 구성안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의견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서승미 위원 : 저는 이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 구성안은 좋고 의견도 따로 메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보고안건이니까요.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음 의결을 할 때 의견을 주시고요. 특히 경영전략 소위원회나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 여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을 짜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우리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일정 안내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넘어오는 지정사업은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넣으세요.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연속으로 들어오는 팀들은 전년도 자료를 같이 넣어 주셔서 비교하면서 보면 어떨까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국회지정사업은 공모를 해서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뿐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해야죠. 그래서 의결안건으로 올리도록 해주세요. 2024년도 3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3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4월 5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36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회의 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